

보도참고

보도일시	2026년 2월 9일(월) 배포 시
배포일시	2026년 2월 9일(월) 11:30
배포부서	한국개발연구원 홍보팀 (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박지연 한국개발연구원 홍보팀장 (044-550-4630, jypark03@kdi.re.kr)

김세직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장 취임사

- 일시: 2월 9일(월) 11:00
- 장소: KDI

KDI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를 빛내고 계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KDI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나라의 앞길을 밝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맡아온 국가 정책의 향도(嚮導)였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연구기관의 운영을 맡게 된 데 대해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은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성장률이 5년에 1%p씩 하락하여, 이제 0%대까지 떨어지며 제로성장이라는 우려가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장률 추락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 및 교육의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치열해진 글로벌 기술경쟁, 통상 환경의 급변, AI 기술 충격이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는 중차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기성장을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도 진짜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과 진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기술, 교육, 사회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혁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견인할 정책 연구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시대적 과제인 ‘진짜성장’을 정책으로 견인할 책무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인 우리 KDI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같이 최고로 우수한 정책연구자들이 있기에, 혁신적인 성장 정책의 개발을 선도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지원함으로써, 우리 KDI가 주어진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멋지게 완수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KDI가 ‘진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적 정책 개발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몇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기성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전략과 기술 진보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정책적 해법, 교육의 근본적 개혁, 부동산 시장 불안 해법, 관세 충격 대응 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과학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보완발전·정밀화’ 하는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적·과학적인 정책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이 이론과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평가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연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관·학 정책연구 협력체계 구축, 외국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시스템을 확대하고, 세계 정책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KDI가 한국의 경제정책을 분석하는 연구기관을 넘어 세계 정책 아이디어를 선도하는 ‘K-policy’의 요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현안 대응 역량과 소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부, 국회, 언론, 국민과의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이 정책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KDI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인재’입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창조적 정책연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하고,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연구의 몰입도와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KDI 가족 여러분,

앞으로의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연구 역량과 함께, 나라의 공공선 달성을 위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진 최고의 인재들, 즉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도와, KDI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정책 싱크탱크로 다시 한번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9.
한국개발연구원장
김 세 직

❖ 별첨. 김세직 제 18대 한국개발연구원장 취임식 사진